

# 진도군, AI와 IoT로 노인건강 관리한다...이달말까지 모집

### 손목시계형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 맞춤형 건강 관리...65세 이상 어르신 50명 대상

진도군이 허약·만성질환 등 건강 개선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를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인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7월말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 방문 및 전화(061-540-6922)로 참여 희망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어르신들은 사전 건강 평가 결과와 개인의 질환 여부에 따라 손목시계형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등 다양한 건강 측정기를 제공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보건소 전문 인력에게 공유되고 모니터링 후

방문 간호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건강 상담 등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또 AI 생활 스피커 제공 등을 통해 독거노인 또는 사회적 허약 대상자의 맞춤형 비대면 자가건강관리 역량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화훼1번지 강진군, '리시안사스' 수확 한창

### 꽃 한 단 7천원...틈새작물 발굴 및 소득증 창출에 농가들 반응 좋아



강진군은 올해 신규 화훼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한 '리시안사스' 수확이 한창이다.

'리시안사스'는 부케나 꽃다발 등 장미만큼 널리 사용되는 꽃으로 모습도 향기도 은은하다. 또, 수확 후 개화기간이 2주 이상으

로 길고, 화색이 다양해 인기가 많으며, 다른 화훼 작목과 재배기간이 겹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품목이다.

군에서는 올해 처음 3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농가는 작약, 수국, 딸기를 주력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며, 여름철 틈새 소득작물로 리시안사스를 재배했다. 정식 및 수확 시 노동력이 들지만, 전반적인 재배 관리가 편하고,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수확한 리시안사스는 양재동 및 광주 화훼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꽃 한 단의 평균 경매가는 7천 원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대한 전망이 밝다.

최영아 연구개발과장은 "리시안사스는 타 화훼 절화류에 비해 개화기간이 길고 유통 시장에서 꾸준한 소비가 있는 꽃이다. 품질과 생산량이 뒷받침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추후 강진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정남진 장흥 물축제, 빈틈 없는 방역대책 마련

### 24시간 비상 상황실 운영

장흥군이 7월 30일 개막하는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앞두고 빈틈 없는 방역에 나선다.

군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물축제 행사장의 방역 대책 강화방향을 밝혔다.

물축제 행사장 내에는 비상 상황실을 두고 주야간 2개반으로 운영한다. 비상 상황실에서는 방역과 안전, 방법 업무를 주관하고, 주민 계도와 안내방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상황실과 프로그램 운영 부스에는 방역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자가진단 신속항원키트를 비치해 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물놀이 시설을 이용객들을 위해서는 방수 마스크도 준비했다. 축제장 내에는 클린게이트 2개소, 발열체온 13개소, 손소독 13개소를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수상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체온측정을 받고 스탬프 날인 후 이용하도록 하고, 물싸움장, 풀파티장, 수중꽃밭장은 행사 종료 후 매일 물을 교체한다.

장흥=김도영 기자

##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쑥쑥' 20억원 달성

### 개장 10개월 400여 농가 참여...농가소득 향상·신선 먹거리 공급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10개월 만에 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7월 20일 기준 2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월평균 2억원이 넘는 운영 호조를 보이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들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개장이후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관내 400여 농가에서 5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직매장 매출액의 90%는 생산농가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중소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특화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된다 보니 지역의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우수한 먹거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중하우스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하품목 확대 등 두드러진 생산자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소농 위주의 다품목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매출 20억원 달성의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중소 농업인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군, 해양바이오 기업체 유치에 전격실무

### 2022 완도군 해양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21일 서울 정경연화관에서 올해 12월 말 준공될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의 스타트업 및 연구소 입주자를 희망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완도군 해양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해양바이오 관련 연구진과 (주)보타메디 등 30개 기업체의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완도군과 협력하고 있는 프랑스 르스코프 연구소 필립 포탕 박사의 국제 R&D

협력 관계 설명 및 완도산 톱을 이용한 인지 개선,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후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투자 환경과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 설명, 기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완도산 톱의 인지 기능 개선 및 치료 효과 연구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과 다양한 R&D 사업 추진 상황 설명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톱'의 풍부한 파이토스테롤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재현성 검증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을 통해 톱 생산 어가의 소득 향상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체는 완도군에서 마련한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내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기업의 대표는 "설명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투자 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체 상황에 맞는 컨설팅 등을 통해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라남도